

혼다 집안 묘소

이 건물들은 도쿠가와 시대(1603~1867)에 쇼샤잔 엔교지 절을 후원했던 무가(武家)인 혼다 일족의 묘입니다. 혼다 다다마사(1575~1631)는 히메지성의 번주가 된 지 2년 뒤인 1619년에 엔교지 절을 방문했습니다. 다다마사는 당시 군 사령관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)가 점령하여 황폐해진 사원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다다마사는 사원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건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다다마사 덕분에 지금도 엔교지 절의 중심적인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묘소에는 다다마사와 아버지인 다다카쓰,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 3명이 모셔져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다다카쓰는 도쿠가와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(1543~1616)가 가장 신뢰했던 무장이었습니다.

혼다 일족의 5인의 후계자들은 각각 같은 모습의 묘소 안에 자리잡은 석조 오른탑으로서 모셔지고 있습니다. 무게감이 있는 커다란 기와 지붕은 완만하게 휘어진 삼각형으로서 지붕 꼭대기에는 공 모양 조카(頂華)(맞배지붕이나 첨탑의 꼭대기에 놓는, 일반적으로 돌 조각 장식)가 놓여 있습니다. 다섯 건물은 모두 효고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부지 내에 있는 두 석탑은 다다마사의 아들인 혼다 다다토키와 손자 고치요의 묘입니다. 다다토키의 석탑 뒤에는 다다토키 사후에 순사한 세 무사의 묘가 있습니다. 그들은 목숨을 바쳐 주인의 사후에도 계속 충성을 맹세했습니다.